



‘되찾은 女帝’

신지에 세계 랭킹 1위 굳히기... 내일 개막 메이저 대회 브리티시 오픈 우승 사냥

한국여자골프의 지존 신지에(22·미래에셋)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브리티시여자오픈(총상금 250만달러)에서 세계랭킹 1위 굳히기에 들어간다.

29일(한국시간) 잉글랜드 사우스포트의 로열버크데일 골프링크스(파72·6465야드)에서 개막하는 브리티시여자오픈은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웨그먼스LPGA 챔피언십, US여자오픈과 함께 4대 메이저대회 중 하나다.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남자대회 브리티시오픈과는 달리 1994년 LPGA 투어 정규투어에 편입됐고 2001년 메이저대회로 승격됐다.

신지에는 27일 공식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1위(10.66점)를 탈환했지만 랭킹 포인트에서 미야자토 아이(일본·10.25점), 크리스티 커(미국·10.18점),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10.14점)이 간발의 차로 추격하고 있다.

신지에가 경쟁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메이저대회 우승컵이 필요하다. 메이저대회 우승자에게는 일반 대회보다 20점이 많은 50점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신지에는 2008년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지만 당시 경기가 열린 곳은

미야자토·커 등과 샷 대결

최나연·장정도 우승 넘바

링크스 코스가 아닌 내륙에서 위치한 서닝데일 골프장이었다.

지난해 전형적인 링크스 코스인 로열 리덤 링크스에서 열렸던 대회에서 신지에는 마지막 날 3타를 잃고 공동 8위로 떨어져 타이틀 방어에 실패했다.

2005년 이후 5년 만에 여자대회를 유치한 로열버크데일 링크스는 거친 러프와 종잡을 수 없는 바닷바람, 깊은 향아리 벙커로 무장하고 있다.

신지에는 “링크스 코스라는 색다른 도전을 즐기겠다”며 “역대 대회에서 우승했던 한국 선배들의 뒤를 이어 다시 정상에 오르고 싶다”고 말했다.

신지에 뿐 아니라 6월 이후 2승을 합작하며 대반격을

시작한 한국 군단은 두터운 선수층을 자랑한다. 5년 전 로열버크데일 링크스에서 열린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선수는 ‘작은 거인’ 장정(30·기업은행)이다. 장정은 당시 나흘 내내 선두를 지키며 16언더파 272타로 정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손목 부상으로 고생했던 장정은 지난주 대회 예비마스터스에서 퍼트 난조로 8위에 그쳤지만 예전의 기량을 되찾고 있다.

최나연(23·SK텔레콤)도 지난달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식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한 뒤 US여자오픈과 예비마스터스에서 공동 2위에 오르며 절정의 샷 감각을 뽐내고 있어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안선주(23)도 예비마스터스에서 공동 11위에 오르며 경쟁력을 입증했고 이번 시즌 13개 대회에 출전, 11차례 톱10에 입성한 김승희(22·하이트)가 언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호시탐탐 여제 자리를 넘보고 있는 미야자토와 커, 페테르센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고 미국의 영건 원투펀치 폴라 크리머, 프레셀도 한국 군단과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시즌 준비 영국으로 떠난 박지성

“대표팀이 부르면 언제든 오겠다”

“을 목표는 당연히 우승”

“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것이 목표다” 축구대표팀 주장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27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새 시즌을 준비하려고 영국으로 떠났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16강 진출 주역인 박지성은 휴식을 마치고 이날 낮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출국장에는 100여 명의 팬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박지성은 “월드컵을 마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두 좋은 준비를 했다”면서 “을 시즌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다. 개인적으로도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경기에 나서 더 많은 골을 넣어 팀의 우승에 보탬이 되고 싶다. 결과물을 경기장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프리미어리그는 물론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FA컵 등 가능하다면 많은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다.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중 꼭 우승하고

싶은 대회를 꼽아달라’는 부탁에는 “두 대회 모두 우승하면 안 되나?”라고 웃으며 되묻고서 “리그 우승이 먼저”라고 답했다.

“많은 경기에 나가려고 노력하고 모든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재차 다짐한 박지성은 프리미어리그 불펜에서 주축 선수로 자리 잡은 대표팀 후배 이청용과 맞대결에 대해서는 “내게 달렸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은 조광래 감독 체제로 거듭날 축구대표팀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그는 “조광래 감독님께 배워본 적이 없어 아직은 구체적으로 할 말이 없다. 하지만 감독님의 능력은 올 시즌 경남FC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감독마다 전술과 색깔,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다. 선수는 그것에 잘 맞춰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광래 감독은 다음 달 11일 치를 나이지리아와 친선경기에 해외파를 모두 부르겠다고 했다. 박지성은 이에 대해 “대표팀이 부르면 당연히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잘라 말했다. /연합뉴스



지소연, 獨 깨주마

29일 밤 동갑내기 포프와 골든 슈·골든 볼 경쟁

한국 여자축구 사상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대회 4강에 오른 20세 이하(U-20) 대표팀이 독일을 상대로 다시 한번 새 역사를 도전한다.

최인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9일 오후 10시30분(이하 한국시간) 독일 베어파워 경기장에서 개최된 독일과 2010 FIFA U-20 여자월드컵 4강 경기를 치른다.

독일은 최대 고비였던 8강에서 2006년 챔피언 북한을 2-0으로 완파하며 2004년에 이어 통산 두 번째 우승을 노리는 세계적 강호다. 하지만 두 번째 본선 참가만에 처음으로 4강까지 오른 한국은 내친 김에 독일마저 넘어 결승 진출을 이루겠다는 각오 뿐이다.

이번 경기의 승패는 열아홉 동갑내기인 양 팀의 주포 지소연(한양여대)과 알렉산드라 포프(FCR 뒤스부르크)의 발끝에 달렸다. 포프는 지난 27일 열린 FIFA 17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했던 지소연

과 포프는 이번 대회에서 득점상인 골든슈, 최우수선수상인 골든볼의 유력한 수상 후보다. 현재 포프는 4경기에서 7골로 득점 1위에 올라 있고, 지소연이 한 골 무자란 6골로 뒤를 쫓고 있다.

지소연은 미국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후반 교체 출전했을 뿐 3경기에서 90분 모두 뛰었고, 포프는 4경기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다.

팀 득점에서 독일(13점)이 1위, 한국(11점)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포프와 지소연의 득점포가 연일 폭발한 덕이다. 160cm의 단신이지만 뛰어난 볼 컨트롤과 패싱 능력은 물론 결정력까지 갖춘 지소연은 한국 여자축구의 희망이다. 한국 남녀 선수들 통틀어 최연소 A매치 출전(15세8개월) 및 득점(15세10개월) 기록을 가진 지소연은 자신의 이름 석 자를 세계무대에 확실하게 알렸다. 지소연은 지난 14일 스위스와 조별리그 첫 경기(4-0 승)에서 이번 대회 첫 헤트트릭을 기록했다.

한국 선수가 FIFA 주관대회에서 헤트트릭을 작성한 것은 남자를 통틀어 처음이었다. 이어 가나와 2차전(4-2 승)에서도 두 골을 쏟아냈다. 이미 8강 진출을 확정된 다음 치른 미국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0-1



알렉산드라 포프

패)에서는 침묵했지만, 멕시코와 8강 경기에서 득점포를 다시 가동해 4강 진출에 큰 힘을 보탤다. 지소연은 포프와 격돌을 앞두고 “꼭 이기고 싶다”고 말했다.

포프도 만만찮다. 174cm로 체격 조건이 좋은 포프는 조별리그 코스타리카와 첫 경기(4-2 승)에서 두 골, 콜롬비아와 2차전(4-1 승)에서 선제골을 넣고 나서 프랑스와 3차전(4-1 승)에서는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대승을 이끌었다. 북한과 8강 경기에서도 선제 결승골을 넣었다. 4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는데, 그 중 3경기 결승골을 책임졌다. /연합뉴스

한국 女핸드볼 조 1위 4강 진출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강호 노르웨이 4점차 제압

20세 이하 한국여자핸드볼대표팀이 제17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1그룹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한국은 27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본선 1그룹 마지막 경기에서 이은비(8골·부산시설관리공단), 유은희(6골), 조희비(5골·이상 부산건설) 등이 고른 활약을 펼쳐 노르웨이를 30-26으로 물리쳤다.

본선에서 5승을 기록한 한국은 2그룹에서 2위로 올라오는 팀과 29일 같은 장소에서 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2그룹에서는 러시아와 헝가리, 몬테네그로가 준결승 티켓을 놓고 혼전을 벌이고 있다. 4승1패가 된 노르웨이는 2위로 4강에 올랐다.

한국은 경기 초반 빠르게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하는 노르웨이의 경기 스타일에 말려들면서 힘겹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노르웨이는 한나 이테링(5골), 마야 야름

센(4골) 등이 중거리 슈트를 퍼부으며 전반 10분이 지날 때 8-5까지 앞서 나갔다.

공격의 조직력을 살리지 못한 한국은 조희비, 유은희, 이은비의 개인 돌파로 추격을 시작했고 22분이 지날 때 노르웨이 선수 2명이 잇따라 2분 퇴장을 당하면서 역전의 기회를 잡았다. 유은희, 조희비의 연속 득점으로 11-11, 동점을 만든 한국은 김선화(부산건설)와 유은희, 이세미(서울시청)가 득점에 가세하며 전반을 15-12로 마쳤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후반 시작 5분 동안 노르웨이의 득점을 봉쇄하며 이세미, 이은비가 상대 골망을 흔들며 18-12로 여유 있게 앞서 갔다.

한국은 노에르스테보에와 이테링에게 연속 득점을 허용하며 후반 15분께 22-20으로 쫓기기도 했지만 김선화가 골대를 맞고 나오는 볼을 다시 잡아 득점으로 연결시키고 골키퍼 박소리(부산시설관리공단)의 선방이 빛을 발하면서 25-20으로 다시 점수를 벌렸다.

유은희는 득점력 못지않게 재치있는 어시스트 능력을 보여줬고 조희비와 이은비는 상대 수비수를 가볍게 제치는 개인기가 돋보였다. /연합뉴스

Grand open 한국 최고 사양 스크린 골프장 **자이언트골프존**

전화문의 02-521-0071

• 퍼머스트스퀘어에 특화된 코트18홀 / 24시간 운영
 • 최첨단 시설과 서비스 / Taylor Made 클럽 판매
 • 30여개의 넉넉한 주차공간